



진달래꽃 팔찌

남창중 2-8 심민서

3월의 봄 어느 작은 요양병원의 한 병실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곧 아름다운 밤하늘이 되신다는 소식에 황급히 달려갑니다.

한 발, 두 발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병실에 도착해 시든 꽃이 된 할머니를 봅니다.

예전 활짝 피어지셨던 모습이 기억나며 눈물이 나지만 애써 꺾은 척 미소를 보입니다.

할머니께서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진달래꽃 팔찌를

손에 쥐어 주시며 미소를 지으며 밤하늘이 되셨습니다.

진달래꽃 팔찌를 주셨던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나와 함께하였던 시간이 할머니에게 더없이 행복했던 선물이길 바라며

진달래꽃 팔찌를 영원히 간직하기로 다짐합니다.

3월의 봄 어느 작은 요양병원의 한 병실이었습니다.